



6월 서울 평창동 갤러리 '세줄'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글씨를 써 준 소리꾼 장사익씨와 함께 했다(왼쪽).
 2월 파리 컬렉션에서 한 모델이 한글 프린트 의상을 선보이고 있다.

‘윤회의 옷’ 안 입은 사람 있나요?

#패션 퍼포먼스 1980년 국제 패션디자인연 구원을 졸업한 이상봉씨가 1985년 첫 매장을 열 었을 때의 일이다. 당시 매장에서 소복을 판매하 지 않았던 불문율을 과감하게 깬다. 컬렉션 의상 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매장에 선보였던 그는 많은 마니아층을 갖게 됐다.

국내에서 패션 퍼포먼스를 처음으로 시도한 것 도 이상봉씨다. 1996년 죽산 국제예술제, 1997년 예술의전당 10주년 기념 패션 퍼포먼스 등을 통 해 조형예술과 패션이라는 새 장르를 개척했다.

패션디자이너가 의상 전시를 한 것도 그만의 독특한 시도였다. 지난 6월 서울 평창동 갤러리 '세줄'에서 '한글, 달빛 위를 걷다-이상봉과 친구 들'이라는 주제로 한글 프린트 의상 20여 점을 전시했다. 관람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판매용 한글 프린트 티셔츠는 금세 동이 났다.

"패션계에 뛰어들지 26년이 됐는데 30주년이 되는 해에 전시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해 왔어요. 파리 컬렉션 의상들을 좀더 많은 사람들 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시회를 앞당겼죠."

#한글 이상봉씨는 지난 2월 파리 컬렉션에서 한글 프린트 의상을 제작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소리꾼 장사익씨와 화가 임옥상씨의 글씨체는 붓필로 티셔츠에 네타 이에 재킷에 찍혀 파리 패션계를 매료시켰다.

왜 한글에 주목했을까. "장사익씨나 임옥상씨 는 항상 친필로 엮거나 편지를 보냅니다. 인쇄물 이 판을 치는 요즘 친필글을 받으니까 아주 소중 하게 느껴지더군요. 거기에 프랑스 친구가 한글 이 너무 독창적이고 아름답다고 한글 120주년 행 사에 활용할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는 것을 보고 한트를 얻었어요."

이상봉씨는 고민 끝에 찾아낸 한글 작품을 본 외국인들은 한국에도 문자가 있냐며 놀라워 했 다. 한자가 아시아의 문자라고 생각하면 그들에 게 한글 프린트 의상은 충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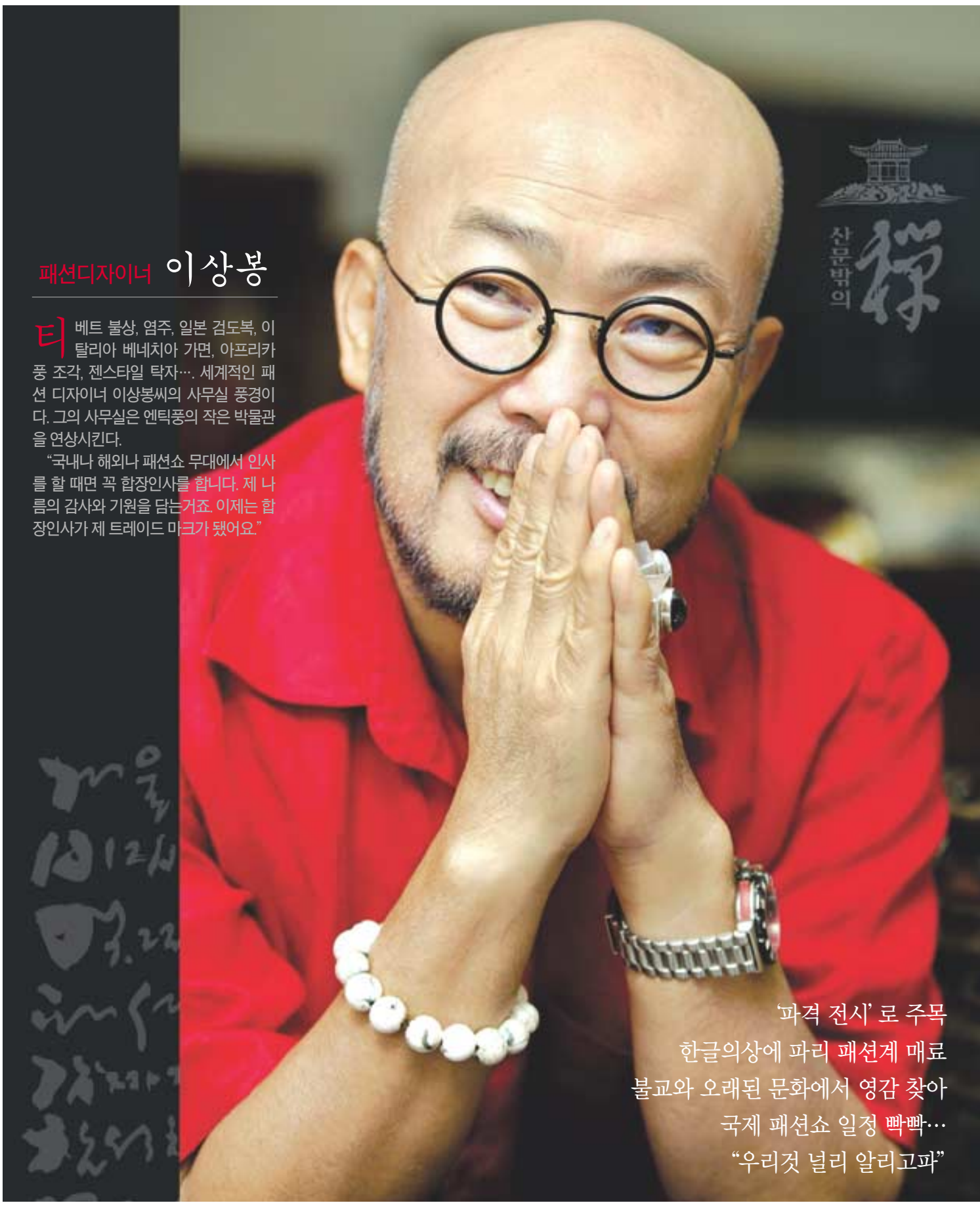
#인연 어린 시절 할머니 손을 잡고 수시로 다니던 대림동의 사찰, 버스 몇 번이나 갈아타고 갔던 삼각산 도선사의 기억은 잊혀지지 않는다. 절밥을 유난히 좋아 하던 이상봉씨는 스님에 대한 동경이 강했다. 스 님께 염불도 배우고 여러 스님들도 많이 만났다. 대대로 불자였던 집안에서 자란 그는 당연히 스 님이 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절은 그에게 꿈을 키운 곳이었고, 놀이터며, 배움터였다.

한 때 승복을 패션샵이 입기도 했다. 그만큼 끌 려다. 바람을 메고 승복을 입고 거리를 다녔다. 스 님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술 담배를 하 던 때였다. 사람들의 오해가 부처님께 죄를 짓는 기분이 들었다. 스님들께도 누가 될 것 같았다. 승 복을 벗었다. 조계사 인근에서 20여년 전에 샀던 그 승복은 지금도 장롱 속에 고이 모셔두었다.

패션디자이너 이상봉

티베트 불상, 염주, 일본 겹도복, 이탈리아 베네치아 가면, 아프리카 풍 조각, 젠스타일 탁자... 세계적인 패 션 디자이너 이상봉씨의 사무실 풍경이 다. 그의 사무실은 엔틱풍의 작은 박물관 을 연상시킨다.

"국내나 해외나 패션쇼 무대에서 인사 를 할 때면 꼭 합장인사를 합니다. 제 나 름의 감사와 기원을 담은거죠. 이제는 합 장인사가 제 트레이드 마크가 됐어요."



‘파격 전시’로 주목
 한글의상에 파리 패션계 매료
 불교와 오래된 문화에서 영감 찾아
 국제 패션쇼 일정 뽐뿌...
 “우리것 널리 알리고파”

절에 가면 조용히 부처님과 마주 앉는다. 부처 님께 기도하고 마음의 번뇌와 고민을 털어놓는 다.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며 불자가 아니었던 부인 도 결혼 후 차츰 변해갔다. 첫 아이를 가졌을 때 부처님 태몽을 꿀 정도로 불교에 빠져들어갔다. 지금은 강남 봉은사를 꾸준히 다니며 수행생활에 열심이다. 부처님오신날에는 부부가 같이 삼사순 레를 하며 기도한다.

이상봉씨는 중국이나 몽골 등에 비해 티베트 불교가 아직도 그 순수성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 고 생각한다. 그래서 티베트는 그에게 정신적인 고향이다.

"내가 불경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속 에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느끼고 이해하고 깨우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원(圓) 이상봉씨의 의상은 '원 (圓)'이다. "나도 모르고 있 었는데 주변에서 내 의상에서는 '원'이 빠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이 원은 윤회예요. 시작과 끝 이 계속 빙글빙글 도는 윤회."

모든 생물은 '윤회'의 옷을 입는다. 그 옷을 훌 출 벗는 '해탈'이 모든 존재의 꿈이듯 이상봉씨 의 작업도 해탈을 꿈꾼다.

이상봉씨는 '정체' 되는 것이 싫다. 끊임없이 호 기심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고 찾아내고 관심을 가지고 변화한다.

"디자이너는 진화하고 자신을 깨뜨려 가는 작업" 이라는 이상봉씨는 "스스로 정체되는 것이, 변하 지 않는 것이 두렵다"는 말도 덧붙인다.

그런 그가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 세 번 이나 불이 났던 그의 집. 1985년 처음으로 만들었 던 명함 디자인. "나를 잊지 말자는 저 나름의 고 집입니다. 처음 내 브랜드를 만들었던 시절의 흥 분, 작은 것에 대한 행복, 꿈 등 초발심을 잊고 싶 지 않아서 간직하는거죠."

이상봉씨는 오래된 것, 오래된 문화에서 영감을 얻는다. 그들과 만나기 위해 자주 찾는 곳은 벼룩 시장.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 나라의 문화를 공부 하는 것은 그에게 행복이고 영감의 원천이다.

"불자니까 디자인을 하면서 그 정신적인 측면 은 불교의 영향을 받는다"는 이상봉씨. 그의 첫 번째 개인 패션쇼의 주제 역시 '윤회'였다. 탄생 과 죽음을 그는 한 자리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윤회를 보여주며 패션쇼를 퍼포먼스로 이끌었다.

올해도 그의 일정은 빽빽하다. 8월 말과 9월 초 에 파리, 9월 중순에 미국에서 패션쇼가 열린다. 프랑스 디자이너 40명과 함께 한글 쇼도 준비중 이다. 10월 2일에는 파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한국의 패션을 해외에 보급하고 우리 문화를 알려줘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후배들에게 당당하 게 우리 디자인을 들려주고 싶어서 오늘도 한다" 는 패션디자이너 이상봉씨의 꿈은 아직도 현재진 행형이다. 글=강지연 기자·사진=백재원 기자

梵魚寺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세트
 문 없는 문을 열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10대 선사의
 간화선 수행에 대한 상세한 법문을 만나보세요.

범어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범어사 설선대법회'의 열분의 법주스님들의 법문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 설선대법회 CD, Video도 있습니다. (각10,000원)

■ 30,000원 (무료배송)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분들께 최고의 법보시 (도반선물로 최상의 선택)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이 법문 세트는 광주 동구불교협회의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의 열분의 법주(미산 정무 현봉 혜거 자광 지운 재연 호진 도법 철우) 스님들이 2005년 10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광주광역시동구KT정보센터대강당에서 설법한 것입니다.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30,000원 (무료배송) 날개 3천원

說 禪

■ 판매처 : 여시아문 www.yosiamun.com 02)737-0695, 02)2004-8219, 8220 [입금계좌 : 국민은행 023-25-0007-617 / 농협 053-01-265785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